

# 方劑分析에 依한 黃元御의 生理觀 考察

- 《四聖心源》의 中氣와 相火의 生理를 中心으로 -

張敬善·鄭桐柱\*

## I. 緒 論

《四聖心源》은 1753년(乾隆18年 癸酉年)에 책이 완성되었는데 이것은 黃元御가 內外感傷을 논술하여 저작한 것이다. 黃帝, 岐伯, 越人, 仲景의 四聖이 내려왔으나 醫者는 매번 聖訓을 버리며 準繩을 폐기하였었는데 黃이 밝게 四聖의 偉業에 通達하였으니 이에 四聖의 經典을 精蘊함을 本으로 하여 諸家의 장점을 모아서 자기의 견해를 융합하여 內외의 百病을 論述하여 10卷으로 나누어 《四聖心源》이라命名하였다. 卷1에서 卷3까지는 첫머리에 陰陽五行, 藏府氣血, 氣血營衛, 六氣治法 등 동양의학의 기초 이론을 論述하였고 卷4에서 卷10까지는 곧 內科, 外科, 婦人科, 七竅 等の 諸家雜病의 辨證論治를 나누어 論述하였다. 이 책은 理·法·方·藥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며 四聖의 미묘한 醫意를 새롭게 전하였으니 醫者가 法으로 따르고 읽고 연구하기에 자료로서 足하다.<sup>1)</sup>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말하기를 “그 문장이 지극히 넓게 辯論하고 調和되어 그 뜻을 헤아린 것이 많았다.”<sup>2)</sup>고 하였다.

韓醫學에서는 陰陽升降浮沈으로 생을 유지한다고 설명한다. 陰陽의 법칙은 相互互根과 同氣相應이라는 대립적인 두 국면의 종합에 있다. 陰陽을 말하려면 현상화 내지는 구체화하기 위한 五行의 개념으로 水火가 필요하다. 우리는 인간의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서 항상 天地를 배제할 수 없었다. 天地에서 인간을 찾고 天地의 運動을 담당하는 日月의 運行이 곧 水火陰陽의 法則이므로 陰陽의 法則은 水火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水火者 陰陽之徵兆요<sup>3)</sup> 陰陽者 水火之性情”이라고 한 것이 水火陰陽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水火의 運動을 升降으로 말하면 寒熱의 현상으로 드러난다. 따

라서 陰陽의 문제는 寒熱의 표현으로 규정되어진다. 다시말해 인간의 몸의 질서는 寒熱之交에 있어서 잘 곳이 차고 따뜻해야 할 곳이 따뜻하여야 하는 中道에 달려있다. 이러한 寒熱교류의 失調는 水升火降의 구체적인 현상이다. “사람의 모든 病은 모두 水火가 사귀지 못하는 원인에서 연유한다.”<sup>4)</sup> 이러한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藏府氣機升降의 氣化理論이다.

黃元御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催<sup>2)</sup>의 “黃元御의 生涯와 醫學思想”, 劉<sup>5)</sup>의 “黃元御 中氣升降淺深”, 趙<sup>6)</sup>의 “論黃元御升運脾陽的醫學思想”, 遲<sup>7)</sup>의 “論黃元御執中治本的論治特色”, 嚴<sup>8)</sup>의 “討論黃元御的中氣升降學術思想”이 있다. 그러나 方劑를 분석하여 黃元御가 바탕을 두고 있는 氣機升降의 氣化理論<sup>9)</sup>에 바탕한 人體生理病理觀 및 用藥의 原則들을 계통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다.

方劑는 최종적으로 患者에 활용된 내용으로 醫者의 人體觀, 疾病觀 및 治療觀이 融合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方劑는 각종의 治法 아래서 총괄되며 治法의 성립은 方劑研究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sup>10)</sup>

이에 著者들은 黃元御의 人體觀과 生理·病理觀 및 治法과 用藥의 原則에 바탕하여 저술된 《四聖心源》에 수록된 方劑를 治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黃元御의 人體生理觀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II. 研究方法

《四聖心源》全篇에 걸쳐 黃元御가 표현하고 있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는 人體觀에 바탕하여 성립된 生理病理觀 및 治法과 用藥의 原則에 바탕하여 疾病을 설명한 내용을 조사하여 적용된 治法들을 藏府間的 寒熱燥濕으로 정리하였다. 藏府間的 寒熱燥濕은 그의 人體觀에 바탕한 生理·病理를 계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藏府間的 寒熱燥濕 病理에 바탕한 治法을 조사하여 정리하였고 또한 治法에 따라 사용된 代表藥物들을 分類하여 이들을 정리하여 表를 제작하고 번호를 매기어 分類가 가능하게끔하였다. 分類된 代表藥物을 기반으로 《四聖心源》에 수록된 전체 方劑를 분석하여 해당 方劑에 적용된 治法들을 파악해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方劑들에서 적용된 치법들을 다시 藏府間的 寒熱燥濕에 따른 分類表에 의거하여 사용된 回數를 조사해서 가장 廣範圍하게 적용된 治法을 얻어냈다. 方劑分析을 통하여 얻어진 광범위하게 적용된 治法을 바탕으로 黃元御가 重點을 두고 있는 疾病觀에 대한 골격을 파악해내고 이를 근거로 하여 人體生理觀을 考察해보았다.

### III. 本 論

#### 1. 氣化의 理論

인체의 藏府의 상호기능을 설명하는데에 氣

의 理論을 사용한다.<sup>11,21)</sup> 韓醫學의 生理·病理觀과 病을 치료하는 原則들이 氣化의 기본원리와 관계되지 아니한 것이 없다.<sup>11,20,21)</sup> 즉 藏府의 사이에는 氣를 매개로 하는 相互制約·相互資生이 있으며 이의 구체적인 표현은 升降出入運動으로 나타난다.<sup>11)</sup> 따라서 인체의 藏府, 經絡, 氣血, 津液 등의 기능활동은 모두 氣機의 升降에 의하여 動的平衡狀態를 維持한다.<sup>12,20,21)</sup>

藏府氣機의 升降은 五行의 動的平衡關係를 설명하는 과정이론으로 藏象學說의 핵심이며 藏府의 寒熱燥濕은 升降의 결과로서 外部에 發顯되는 것이다. 藏府寒熱燥濕은 六氣로써 파악되며 이는 經絡學說의 핵심이론이 되어 五行과 六氣의 이론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藏府의 氣機升降은 “心腎은 升降의 根本, 脾胃는 升降의 樞軸, 肝肺는 升降의 外輪”으로 요약되며,<sup>13,14)</sup> 구체적으로는 氣機升降의 圓運動<sup>15,16)</sup>으로 표현되어 左半圓은 腎(水), 脾(土) 肝(木)의 藏府가 관여되며 上升을 주관하고 있고, 右半圓은 心(火), 胃(土), 肺(金)의 藏府가 관여되며 下降을 주관하고 있다.<sup>15,16)</sup>

따라서 氣機升降의 평형상태가 失調되어 발생되는 질병의 상태는 藏府間的 寒熱燥濕으로 계통적으로 설명되고 있다.<sup>1)</sup> 질병을 藏府間的 寒熱燥濕과 治法 그리고 代表藥物을 선정하여 이를 表로 정리하였다. (表 1-1~2)

表1-1 藏府의 燥濕寒熱을 나타낼 수 있는 病理와 治法 그리고 代表藥物

藏府의 寒熱燥濕病理	治 法	代 表 藥 物
A.脾(土濕)		
a.脾土濕	燥濕, 培土瀉濕	白茯苓
b.中虛脾濕	補中燥濕	白朮
c.中氣虛	c-1.補中, 培中氣 c-2.理中益氣	人蔘 甘草
d.脾濕旺	d-1.燥土, 瀉濕 d-2.培土滲濕	澤瀉 甘草+白茯苓+澤瀉
e.脾陽虛	e-1.溫中行鬱 e-2.達脾陽	乾薑 砂仁
B.腎(水寒)		
a.腎水寒(下寒)	a-1.溫腎水 a-2.暖水燥土 a-3.暖水行鬱	附子+川椒 附子 附子+砂仁
C.脾+腎(脾濕腎寒)		

臟府의 寒熱燥濕病理	治 法	代 表 藥 物
a. 腎寒脾濕(水寒土濕)	a-1. 暖脾溫腎 a-2. 培土溫寒	乾薑+附子 白朮+甘草+附子
b. 中下濕寒	溫中燥濕	乾薑+白茯苓
c. 氣泄陽亡,厥逆寒冷	c-1. 續微陽 c-2. 祛寒濕	人蔘+黃芪+乾薑+附子 吳茱萸+澤瀉
D. 脾+腎+肝(脾濕腎寒肝熱)		
a. 木氣下鬱,風木枯燥	a-1. 補肝血,養血滋肝,清風潤木 a-2. 補血滋肝 a-3. 涼血滋肝 a-4. 達木清風 a-5. 清肝鬱火	當歸, 川芎+當歸 阿膠 生地黃 桂枝+白芍藥 柴胡
b. 濕旺木鬱而生下熱	瀉脾濕而清肝熱	培白茯苓 白芍藥 加 澤瀉牡丹皮
c. 肝氣(木氣)下陷	c-1. 疏木行鬱, 達木升陷 c-2. 達木而扶陽	桂枝 人蔘+桂枝
d. 肝血虛弱 不能生化	培陽神之源	當歸+地黃+白何首烏
e. 血枯木燥	滋風木	白芍藥+阿膠+當歸, 白芍藥+何首烏+當歸, 白芍藥+阿膠+當歸+地黃+何首烏
f. 肝血鬱	達肝木行瘀血	桂枝+牡丹皮
g. 血鬱痛作	破瘀血	牡丹皮, 牡丹皮+桃仁
E. 脾+腎+肝+膀胱(脾濕腎寒+肝熱+膀胱熱)		
下熱(膀胱熱)	清心火瀉脾土, 利水瀉熱(膀胱熱)	梔子

表1-2 臟府의 燥濕寒熱을 나타낼 수 있는 病理와 治法 그리고 代表藥物

臟府의 寒熱燥濕病理	治 法	代 表 藥 物
F. 脾+腎+肝+心+膽(脾濕腎寒+肝熱+心熱+膽熱)		
a. 心火上炎(上熱)	a-1. 清上熱 a-2. 清木火斂膽 a-3. 清心退熱 a-4. 清膽火 a-5. 清君相火 a-6. 清風瀉火(相火)	黃連+白芍藥 白芍藥 黃芩 培白芍藥 麥門冬+白芍藥 阿膠+地黃+黃芩
G. 脾+腎+肝+心+爲+膽(脾濕腎寒肝熱心熱+胃燥+膽熱)		
a. 相火極旺	清相火	加黃芩培白芍藥
b. 胃氣上逆	降胃氣	白茯苓+半夏
c. 肝膽火	c-1. 瀉肝膽 c-2. 瀉膽而清相火 c-3. 斂心神 藏精 降膽氣	白芍藥+柴胡+黃芩 黃芩+白芍藥 牡蠣
H. 脾+腎+肝+心+胃+膽+肺		
a. 胃逆則肺膽俱無降路	a-1. 降胃氣+緩迫急 a-2. 降胃氣+泄木邪 a-3. 降胃氣+散結鬱	+ 甘草 半夏 +白芍藥 +柴胡+鼈甲
b. 膽火刑金	清膽肺	白芍藥+貝母
c. 肺胃之逆	降攝肺胃之逆	半夏+五味子
e. 肺氣滯	e-1. 利肺氣 e-2. 降逆疏壅 e-3. 降濁疏鬱	陳皮+杏仁 橘皮, 杏仁
d. 肺氣不降	肅降肺氣	五味子

藏府의 寒熱燥濕病理	治 法	代 表 藥 物
f.熱傷肺氣 不能化水	益氣生水 以培陰精之源	人蔘+黃芪
g.肺熱	g-1.清金瀉熱 g-2.涼肺熱降心火 g-3.瀉熱涼金 g-4.清金而益水 g-5.清肺熱	石膏 麥門冬 百合, 百合+貝母 元參 麥門冬+貝母
h.肺鬱生熱	清心肺	麥門冬+石膏
i.上傷燥熱 下病濕寒 燥熱在肺肝之經 濕寒在脾胃之藏	i-1.瀉濕燥土+清風疏木 i-2.瀉濕燥土+溫腎水之寒 i-3.瀉濕燥土+斂腎精之泄	白茯苓+澤瀉+地黃+牡丹皮 白茯苓+澤瀉+附子 白茯苓+澤瀉+山藥+山茱萸
j.脾肺濕旺化生鬱濁腐敗粘膠不得下行	j-1.行其痰飲 j-2.下痰飲	瓜蒂散 續隨子仁
k.痰盛	行氣瘀濁	白茯苓+橘皮+生薑取汁
l.胃寒	l-1.溫胃 l-2.驅寒邪而達木鬱	乾薑+川椒+附子 乾薑+川椒+附子+桂枝
I.脾+腎+肝+心+胃+膽+肺+小腸+大腸		
a.土濕胃逆肺鬱膽盛 不能生化	滋大腸	肉蓯蓉
b.血燥不能疏泄	滋風木	阿膠+當歸
c.肝木鬱陷關竅阻塞 疏泄之令不行	c-1.溫中破滯 益脾陽以開腸竅 c-2.瀉大腸滯氣 c-3.升提手陽明之墜陷	乾薑+砂仁 杏仁+橘皮 升麻
d.閉鬱痰盛不能生水以滲膀胱而土濕木鬱疏泄不行	瀉濕疏木	白茯苓+澤瀉+桂枝, 豬苓+滑石, 桂枝+阿膠

2. 《四聖心源》全篇에 수록된 方劑를 질병상태를 표현하는 藏府間의 寒熱燥濕에 따른 治法과 代表 藥物 分析表를 적용하여 分析하였으며 이 결과를 表로 정리하였다.(표2-1~9)

表2-1 藏府間의 寒熱燥濕에 따른 治法과 代表藥物 분석표에 의한 方劑조사

篇名	細目	病 證	處方名	主治症	구성약물	적용된 治法분석	藏府寒熱燥濕 表分析	加 減	藏府寒熱燥濕 表分析
六氣解	六氣治法	治厥陰風木法	桂枝苓膠湯	治厥陰風木	甘草 桂枝白芍藥 白茯苓 當歸 阿膠 生薑 大棗	培土瀉濕 達木清風 滋風木 理中益氣	A-a D-a-4 I-e A-c-2		
		治少陰君火法	黃連丹皮湯	治少陰君火	黃連 白芍藥 生地黃 牡丹皮	清上熱 養血滋肝 破瘀血	F-a-1 D-a-3 D-g		
		治少陽相火法	柴胡芍藥湯	治少陽相火	柴胡 黃芩 甘草 半夏 人蔘 生薑 大棗 芍藥	瀉肝膽 培中氣 降胃氣 瀉膽而清相火 理中益氣	G-c-1 A-c-1 H-a-1, H-a-2 G-c-2 A-c-2		
		治太陰濕土法	朮苓苓澤湯	治太陰濕土	甘草 白朮 白茯苓 澤瀉	培土滲濕 補中燥濕	A-d-2 A-b		
		治陽明燥金法	百合五味湯	治陽明燥金	百合 石膏 麥門冬 五味子	清心肺 肅降肺氣 瀉熱涼金	H-h H-d H-g-3		
		治太陽寒水法	苓甘薑附湯	治太陽寒水	甘草 白茯苓 乾薑 附子	暖脾溫腎 溫中燥濕 理中益氣	C-a-1 C-b A-c-2	若有濕熱 當用 梔子 石膏之類	E H-g-1

表2-2

藏府間的 寒熱燥濕에 따른 治法과 代表藥物 분석표에 의한 方劑조사

篇名	細目	病證	處方名	주치症	구성약물	적용된 治法분석	藏府寒熱燥濕表分析	加減	藏府寒熱燥濕表分析		
勞傷解	陰陽		中氣	黃芽湯	治中氣	人蔘 甘草 白茯苓 乾薑	溫中燥濕 培中氣 理中益氣	C-b A-c-1 A-c-2	心火上炎-黃連白芍-清心 腎水下寒-附子川椒-溫腎 肝血左鬱-桂枝牡丹皮-舒肝 肺氣右滯-陳皮杏仁-利肺	F-a-1 B-a-1 D-f H-e-1	
			陰虛	地魄湯	治陰虛	甘草 半夏 麥門冬 芍藥 五味子 元蔘 牡蠣	清君相之火 降攝脾胃之逆 清金益水 斂神精藏,降膽氣 理中益氣	F-a-5 H-c H-g-4 G-c-3 A-c-2	熱傷肺氣不能化水-人蔘黃芪-益氣生水以培陰精之源	H-f	
			陽虛	天魂湯	治陽虛	甘草 桂枝 白茯苓 乾薑 人蔘 附子	溫中燥濕 暖脾胃 達木扶陽 理中益氣	C-b C-a-1 D-c-2 A-c-2	肝血虛弱-不能生火-當歸,地黃,何首烏-培陽神之源	D-d	
			陰脫	烏肝湯	治陰脫	甘草 人蔘 白茯苓 乾薑 附子 何首烏 白芍藥 桂枝	燥土潤濕 暖脾胃 達木清風 達木浮陽 理中益氣 滋風木	C-b C-a-1 D-a-4 D-c-2 A-c-2 D-e			
			陽脫	兔髓湯	治陽脫	甘草 人蔘 五味子 半夏 龍骨 元蔘 附子 牡蠣	降胃氣 降攝脾胃之逆 清金益水 暖水燥土 培中氣 斂神藏精降膽氣	H-a-1 H-c H-g-4 B-a-2 A-c-1 G-c-3			
	精神		神驚	金府湯	治神驚	甘草 白茯苓 半夏 桂枝 白芍藥 龍骨 牡蠣	降胃氣 達木清風 斂心神降膽氣 培土瀉濕	D-g,H-a-1+2 D-a-4 G-c-3 A-a	上熱-倍白芍藥-清膽火 下寒加附子-溫腎水	F-a-2 B-a-2	
			精遺	玉池湯	治精遺	甘草 桂枝 白芍藥 龍骨 牡蠣 附子 砂仁	達木清風 暖水行鬱 斂心神降膽氣	D-a-4 B-a-3 G-c-3	濕旺木鬱而生下熱-培白茯苓白芍藥加澤瀉牡丹皮-瀉脾濕而清肝熱	D-b	
	氣血	氣滯		下氣湯	治滯在胸膈右肋者	甘草 半夏 五味子 白茯苓 杏仁 貝母 白芍藥 橘皮	降攝脾胃之逆 降肺氣 降胃氣 清膽肺 利肺氣 培土瀉濕	G-c-3 H-d H-b G-b H-2 A-a			
				氣積	連鬱湯	治積在膈腹左脇者	桂枝 繁甲 甘草 白茯苓 乾薑 砂仁	培土瀉濕 溫中破滯益脾陽 疏木行鬱	A-a I-c-1 D-c-1		
				血癆	破癆湯	治血癆	甘草 白茯苓 牡丹皮 桂枝 丹參 桃仁 乾薑 何首烏	破癆血 理中益氣 達肝木行癆血 溫中燥濕	A-c-2 D-g D-f C-b		
		衄血		仙露湯	治衄血	麥門冬 五味子 貝母 半夏 側柏 甘草 白芍藥 杏仁	清肺熱 降攝脾胃之逆 理中益氣 降濁疏鬱 清木火斂膽	H-g-5 H-c A-c-2 H-e-3 F-a-2	上熱非感而衄症時作-加乾薑白茯苓-溫中燥濕 大衄之後氣泄陽亡厥逆寒冷-人蔘黃芪乾薑附子-續微陽	C-b C-c-1	
				靈雨湯	治大吐衄血者	甘草 人蔘 白茯苓 半夏 乾薑 側柏 牡丹皮	溫中燥濕 培中氣 破癆血 降胃氣	C-b A-c-1 D-g H-a-1	下寒甚-蜀椒附子零星略吐紅鮮不應雖有上熱亦非實火-稍加麥門冬貝母-略清肺熱	B-a H-g-5	
				白茅湯	治零星吐衄血者	人蔘 甘草 白茯苓 半夏 麥門冬 茅根 白芍藥 五味子	降胃氣 降攝脾胃之逆 涼肺熱降心火 培中氣 培土瀉濕 清君相火	G-b, H-1+2 H-c H-c-1 A-a F-a-5	相火極旺-加黃芩培白芍藥	G-c-2	
		便血	寧波湯	治溺血	甘草 桂枝 白芍藥 丹膠 白茯苓 澤瀉 梔子 髮灰	瀉濕疏木 培土參濕 達木清風 補血滋肝 利水瀉熱	I-d A-d-2 D-a-4 D-a-2 E	癆血紫黑 壅塊聚阻-牡丹皮桃仁之類-行之	D-g		

表2-3

藏府間的寒熱燥濕에 다른 治法과 代表藥物 分析表에 의한 方劑조사

篇名	細目	病證	處方名	主治症	구성약물	적용된 治法분석	藏府寒熱燥濕 表分析	加 減	藏府寒熱燥濕 表分析
雜病解 (上)	鼓脹 根源	氣鼓	桂枝薑砂湯	治氣鼓	白茯苓 澤瀉 桂枝 白芍藥 甘草 砂仁 薑 西瓜漿	培土瀉濕 溫中燥濕 達木清風 溫中破滯 瀉濕疏木	A-d-2 C-b D-a-4 I-c-1 I-d	膀胱濕熱小便紅澀者-梔子-清之	E
			瓜蒂散	治氣鼓	瓜蒂 赤小豆 香豉				
	水脹	苓桂浮萍湯	治水脹	白茯苓 澤瀉 半夏 杏仁 甘草 浮萍 桂枝	瀉濕疏木 培土瀉濕 降胃氣 降濁疏鬱	I-d A-d-2 G-b, H-a-1 H-e-3	中氣虛-人參 寒-乾薑 肺熱-麥門冬 貝母	A-c-1 A-e-1 H-g-5	
		苓桂阿膠湯	治水脹	白茯苓 澤瀉 甘草 桂枝 阿膠	培土瀉濕 疏木行鬱 補血滋肝	A-d-2 D-c-1 D-a-2	小便不清-西瓜漿 熱-梔子 中虛-人參 寒-乾薑	E A-c-1 A-e-1	
	噎膈 根源	苓桂半夏湯	治噎膈 胸膈痞塞	白茯苓 澤瀉 甘草 桂枝 半夏 乾薑 白芍藥 生薑	培土瀉濕 降胃氣 疏木邪 瀉濕疏木 達木清風 溫中燥濕	A-d-2 G-b, H-a-1+2 I-d D-a-4 C-b	*痰盛者-白茯苓橘皮生薑取汁 *痰飲極盛-瓜蒂散 *胃逆則膈木盤結不得下行-甘草-緩急迫 白芍藥-瀉木邪 柴胡繁甲-散結鬱-風木枯 燥-阿膠當歸-滋木清風 * 肝木鬱陷官竅阻塞疏泄之令不行-乾薑砂仁-溫中破滯益脾陽而開腸竅 桂枝-達木鬱而行情泄 *便堅澀難下者-重用肉苁蓉白蜜 *血燥不能疏泄-阿膠當歸-清風木	H-k H-a-1+2+3 D-e I-c-1 D-c-1 I-a D-e	
	反胃 根源	苓薑半夏湯	治反胃	人參 半夏 乾白 薑 茯苓 蜜	溫中燥濕 降胃氣 培中氣 溫中行鬱	C-b G-b A-c-1 A-e-1	肝氣不能疏泄-桂枝阿膠-疏木清風	D-c-1	
	消渴 根源	腎氣丸	治消渴 陰一斗 小便一斗	地黃 山藥 茯苓 山藥 牡丹皮 白茯苓 桂枝 附子	瀉濕疏木 達肝行瘀血 溫腎水寒	A-d D-f A-b-1 H-I-1+2+3			
		猪苓湯	治上消 下陷者	猪苓 白茯苓 澤瀉 滑石 阿膠	瀉濕燥土 補血滋肝 瀉濕疏木	D-a-2 A-d-1 I-d	木鬱不能疏泄-桂枝-達木氣		
		桂附苓烏湯	治飲一 洩二者	白茯苓 澤瀉 桂枝 龍骨 牡蠣 何首烏	瀉濕燥土 暖脾溫腎 斂心神降膽氣 瀉濕疏木 溫中燥濕	A-d-1 C-a-1 G-c-3 I-d C-b			
	癲狂 根源	苓甘薑附龍骨湯	治癲病 悲恐失 正者	半夏 甘草 乾白 薑 附子 白茯苓 麥門冬 牡蠣	降胃氣 緩迫急 暖脾溫腎 溫中燥濕 涼肺降心火 斂心神降膽氣	G-b, H-a-1 C-a-1 C-b H-g-2 G-c-3	有痰者-蜀漆		
		丹皮柴胡犀角湯	治狂病 喜怒者	牡丹皮 柴胡 犀角 生地黃 白芍藥 白茯苓 甘草	破瘀血 達木清風 培土瀉濕 涼血滋肝 清肝鬱火	D-g D-a-4 A-a D-a-3 D-a-5	有痰者-蜀漆 濕痰膠固-瓜蒂散		
	痰飲 根源	薑苓半夏湯	治痰飲	白茯苓 澤瀉 甘草 半夏 皮 生薑	培土瀉濕 降胃氣 緩迫急 降逆疏壅	A-d-2 G-b, H-a-1 H-e-2	*上熱者-知母石膏 *下寒者-乾薑附子 *痰之陳宿總綿膠固難行者-枳實-開之 *飲之停於藏府者 上在胸膈-十棗湯-瀉氣分, 下在臍腹-猪苓湯-瀉水道 *流涎經絡者-五苓散-瀉之汗孔 *一切痰飲-瓜蒂散, 續隨子仁-吐下之	A-g-1 C-a-1 H-j-1 H-j-2	
咳嗽 根源	苓甘五味細辛湯	治咳嗽	芎藭 乾薑 細辛 五味子 甘草 芍藥	降胃氣 緩迫急 培土瀉濕 降逆肺胃之逆 溫中燥濕	G-b, H-a-1 A-a H-c C-b	*甚者為胸喘-橘皮杏仁-利肺氣 *肺鬱生熱-麥門冬石膏-清心肺 *膽火刑金-白芍藥貝母-清膽肺 *勞嗽吐血-側柏-斂肺氣 *感冒風寒-生薑蘇葉-解表邪	H-e-1 H-h H-b		
肺癰 根源	蘇葉橘甘桔湯	治肺癰	蘇葉 甘草 桔梗 杏仁 貝母 白茯苓 芍藥 生薑	降濁疏鬱 培土瀉濕 降逆疏壅 利肺氣	H-e-1 H-e-3 A-a H-e-2	*胃逆胸滿重-半夏 *痰盛膿膠痰阻塞-甘遂葶藶之屬-驅之, 膿血腐瘀-牡丹皮桃仁之類排之	D-g		
	二白散	治肺癰 膿甚者	桔梗 貝母 巴豆						
	葶藶大棗瀉肺湯		葶藶 大棗						

篇名	細目	病證	處方名	主治症	구성약물	적용된 治法분석	藏府寒熱燥 濕表分析	加 減	藏府寒熱燥 濕表分析	
雜病解 (中)	腹痛根源		薑苓桂枝湯	治脾胃下陷 痛在少腹者	桂枝 白芍藥 甘草 白茯苓 乾薑	溫中燥濕 達木清風	C-b D-a-4			
			柴胡桂枝柴 甲湯	治胃膈上逆 痛在心胸者	柴胡 鱉甲 甘草 桂枝 半夏 白芍藥 白茯苓	達木清風 降胃氣 清肝鬱火 培土瀉濕	D-a-4 G-b, H-a-1+2+3 D-a-5 A-a	*胃寒-乾薑川椒附子-驅寒 邪而達木鬱 *風熱兼作-白芍藥柴胡黃芩 -瀉肝膽 *血枯木燥-白芍藥阿膠當歸 地黃何首烏-滋風木 *血鬱痛作-牡丹皮桃仁-破 瘀血 *癥結難開-蟬蟲蠶蟲之類- 行之 *尋常血瘀-五靈脂山羊毛 *飲食停滯 土困木鬱作痛-大黃乾薑附 子-瀉食水 劇者-少加巴豆霜-擴清陳宿	H-i-1 G-c-1 D-e D-g	
	腰痛根源		桂枝薑附阿 膠湯	治腰痛	白茯苓 桂枝 甘草 乾薑 附子 阿膠	疏木行鬱 培土瀉濕 暖脾胃腎 補血滋肝	D-c-1 A-a C-a-1 D-a-2			
	奔豚根源		茯苓桂枝甘 草大造湯	治汗後亡陽 臍下悸動 奔豚欲作者	白茯苓 桂枝 甘草 大棗	培土瀉濕 疏木行鬱	A-a D-c-1			
			桂枝加桂湯	治奔豚方作 氣從少腹上 衝心胸者	桂枝 白芍藥 甘草 生薑 大棗	達木清風 理中益氣	D-a-4 A-c-2			
			奔豚湯	治奔豚盛作 氣上衝胸 頭疼腹痛往 來寒熱者	甘草 半夏 白芍藥 當歸 黃芩 生薑 川芎 生葛 甘李根 白皮	降胃氣 滋風木 瀉膈而清相 火	H-a-1+2 D-e G-c-2			
			龍珠膏	...	川椒 附子 烏頭 巴豆 桂枝 白茯苓 牡蠣 鱉甲					
	瘰癧根源		茱萸澤瀉烏 頭桂枝湯	治瘰癧	吳茱萸 澤瀉 烏頭 桂枝	祛寒濕 疏木行鬱	C-c-2 D-c-1			
			蜘蛛散	治瘰癧	蜘蛛 桂枝	疏木行鬱	D-c-1			
	積聚根源		化堅丸	治積聚	甘草 牡丹皮 橘皮 桃仁 杏仁 桂枝	達肝木行瘀 血 破瘀血 利肺氣	D-f D-g H-e-1	*內寒-巴豆川椒 *內熱-芒硝大黃 *左積者-鱉甲牡蠣 *右積者-枳實厚朴		
			化堅膏	治積聚	當歸尾 鱉甲 巴豆 黃連 三稜 蓬朮 穿山甲					
	蛔蟲根源		烏苓丸	治蛔蟲	烏梅 人蔘 桂枝 乾薑 附子 川椒 當歸 白茯苓	溫腎水 木鬱扶陽 暖脾胃腎 溫中燥濕 補肝血	B-a-1 D-c-2 C-a-1 C-B D-a-1		蟲積繁盛者-大黃巴豆霜	
	便堅根源		阿膠麻仁湯	治陽盛土燥 大便堅硬者	生地黃 當歸 阿膠 麻仁	滋風木 涼血滋肝	D-e D-a-3	*結甚-白蜜 *胃熱-芒硝大黃 *粘液枯槁-天門冬龜板		
			肉苳蓉湯	治陽衰土濕 糞如羊屎者	肉苳蓉 麻子仁 白 茯苓 半夏 甘草 桂枝	降胃氣+緩 迫急 滋大腸 疏木行鬱	G-b, H-a-1 I-a G-b			

篇名	細目	病證	處方名	主治症	구성약물	적용된 治法分析	藏府寒熱燥 濕表分析	加 減	藏府寒熱燥 濕表分析	
雜病咳 (中)	泄利根源		苓薏人蔘湯	治泄利	人蔘 甘草 白朮 乾薑 白茯苓 肉 豆蔻 桂枝	達木扶陽 溫中燥濕 培土瀉濕 補中燥濕	D-c-2 C-b A-a A-b	大便寒滑不收 小便熱 澀不利-赤石脂-固大腸 硬米-通水道 *少陽之病但有上熱-黃 芩白芍藥-清膽火 *厥陰之病-但有下寒- 黃連黃柏-清上 乾薑附子-溫下	G-a F-a-1 C-a-1	
	痢疾根源		桂枝蓮蓉湯	治痢疾	甘草 桂枝 白芍 藥 牡丹皮 白茯 苓 澤瀉 橘皮 肉荳蔻	瀉濕疏木 培土滲濕 達肝木行瘀血 達木清風	I-d A-d-2 D-f D-a-4	*濕寒-乾薑 *濕熱-黃芩 *後重-升麻	A-e-1 F-a-3	
			桃花湯	治脾胃寒濕痢疾			溫燥己土			
			白頭翁湯	治木鬱生熱痢疾			涼瀉肝脾			
淋瀝根源		桂枝苓澤湯	治淋瀝	白茯苓 澤瀉 甘 草 桂枝 白芍藥	培土滲濕 達木清風	A-d-2 D-a-4	*肝燥發渴-阿膠-清風 潤燥	D-a-2		
雜病解 (下)	中風根源		桂枝苓烏湯	治左半偏枯者	桂枝 白芍藥 甘 草 何首烏 白茯 苓 砂仁	達木清風 達脾陽 培土瀉濕 滋風木	D-a-4 A-e-2 A-a D-e	*中下寒-乾薑附子	C-a-1	
			黃芪薑苓湯	治右半偏枯者	黃芪 人蔘 甘草 白茯苓 半夏 生 薑	益氣生水 降胃氣+緩迫急 燥濕,培土瀉濕	H-f G-b, H-a-1 A-a	*中下寒-乾薑附子 *病重者-黃芪生薑可用 1-2兩 血枯筋燥-阿膠何首烏 之類要當適加	C-a-1 H-f D-c	
			葶藶散	治中風宿痰	葶藶 白芥子 甘 遂					
	歷節根源		桂枝芍藥知 母湯	治歷節	桂枝 白芍藥 甘 草 白朮 附子 知母 防風 麻黃 生薑	達木清風 培土溫寒	D-a-4 C-a-2	*病劇-黃芪-行經絡 烏頭-驅濕寒	H-f	
			烏頭用法	治歷節劇者						
	瘧病根源		括蕤桂枝湯	治風傷衛氣發熱 汗出者	瓜蕤根 桂枝 白 芍藥 甘草 生薑 大棗	達木清風	D-a-4			
			葛根湯	治寒傷榮血 發 熱無汗者	葛根 麻黃 桂枝 白芍藥 甘草 生 薑 大棗	達木清風	D-a-4			
	濕病根源		茵陳五苓散	治濕病	白朮 桂枝 白茯 苓 豬苓 澤瀉	瀉濕疏木 補中燥濕	I-d A-b	發熱惡寒-蘇葉青萍-發 其汗		
			元滑苓甘湯	治濕病	元明粉 滑石 白 茯苓 甘草	培土瀉濕 理中益氣	A-a A-c-2	濕邪在腹 肺氣壅滯-橘 皮杏仁-瀉肺氣	H-e-1	
			苓甘梔子茵 陳湯	治小便黃澀 小 腹脹滿者	茵陳蒿 梔子 甘 草 白茯苓	清心火瀉脾土 利水邪膀胱熱 培土瀉濕	E A-a	*濕熱在脾-大黃 芒硝		
		豬苓湯	治濕病膀胱無熱							
黃疸根源		甘草茵陳湯	治數疸腹滿尿澀 者	茵陳 梔子 大黃 甘草	清心火瀉脾土 利水瀉膀胱熱 培土瀉濕	E A-e				
		茵陳五苓散	治日暮寒熱者	茵陳 白朮 桂枝 豬苓 白茯苓 澤 瀉	瀉濕疏木 補中燥濕	I-d A-b				
		硝黃梔子湯	治汗出腹滿者	大黃 芒硝 梔子	清心火瀉脾土 利水瀉膀胱熱	E				
		梔子大黃湯	治酒疸 心中懊 懣 熱疼 惡心欲 吐者	梔子 香豉 大黃 枳實	清心火瀉脾土 利水瀉膀胱熱	A-e				
		元滑苓甘散	治色疸額黑身黃 者	元明粉 滑石 甘 草 白茯苓	燥土培土瀉濕 理中益氣	A-a A-c-2				



篇名	細目	病證	處方名	主治症	구성약물	적용된 治法分析	藏府寒熱燥 濕表分析	加 減	藏府寒熱燥 濕表分析
雜病解 (下)	喝病根源		人蔘白虎湯	治喝病	石膏 知母 甘草 粳米 人蔘	清金瀉熱 補中,培中氣 理中益氣,	H-g-1 A-c-1 A-c-2		
	霍亂根源		桂苓理中湯	治霍亂	人蔘 白茯苓 甘草 乾薑 桂枝 白朮 砂仁 生薑	補中,培中氣 理中益氣 補中燥濕 溫中燥濕 達脾陽	A-c-1 A-c-2 A-b C-b A-e	*嘔不止-半夏 *泄不止-肉豆蔻 *外有寒熱表證-麻黃 *轉筋痛劇-附子澤瀉	G-b H-a H-i-2
	痰痞根源	柴胡括蕒乾薑湯	治寒痞先寒後熱者	柴胡 黃芩 甘草 人蔘 生薑 大棗 乾薑 括蕒	清肝鬱火 補中,培中氣 理中益氣 溫中行鬱 清心退熱	D-a-5 A-c-1 A-c-2 A-e-1 F-a-3	嘔-半夏	G-b	
									柴胡桂枝乾薑湯
		減味繁甲煎丸	治久痞不愈 結爲癥瘕 名曰痞母	繁甲 柴胡 黃芩 人蔘 半夏 甘草 桂枝 芍藥 牡丹皮 桃仁 阿膠 大黃 乾薑 葶藶	瀉肝膽 破瘀血 降胃氣+散結鬱 清風瀉火 理中益氣	G-c-1 D-g H-a-3 F-a-6 A-c-1.A-c-2			
							白虎桂枝柴胡湯	治溫痞先熱後寒 熱多寒少 或但熱不寒者	石膏 知母 甘草 粳米 桂枝 柴胡
	傷風根源		紫蘇苓薑湯-1	治傷風	蘇葉 生薑 甘草 白茯苓 半夏 橘皮 乾薑 砂仁	降胃氣 降逆疏塞 溫中破滯 達脾陽	G-b, H-a-1 H-e-2 I-c-1 A-e-2		
	胸喘根源	紫蘇苓薑湯-2	治胸喘	蘇葉 杏仁 橘皮 半夏 白茯苓 乾薑 甘草 砂仁 生薑	降胃氣 利肺氣 溫中破滯	G-b, H-a-1 H-e-1 I-c-1	*皮毛閉束 表邪不解-麻黃	H-g-1	

篇名	細目	病證	處方名	主治症	구성약물	적용된 治法分析	藏府寒熱燥濕 表分析	加 減	藏府寒熱燥 濕表分析
七竅解	耳目根源	目病根源	柴胡芍藥丹皮湯	治左目赤痛者	黃芩 柴胡 白芍藥 甘草 牡丹皮	瀉肝膽 破瘀血	G-c-1 D-g		
			百合五味湯	治右目赤痛者	百合 五味子 半夏 甘草 牡丹皮 白芍藥	降竅肺胃之逆 破瘀血 降胃氣+泄木邪 瀉熱涼金	H-c D-g H-a-1+2 H-g-3	熱甚-石膏知母	H-g-1
			百合五味薑附湯	治水土寒濕而上熱赤痛者	百合 五味子 白芍藥 甘草 白茯苓 半夏 乾薑 附子	瀉熱涼金 降竅肺胃之逆 暖脾溫腎 溫中燥濕 降胃氣+泄木邪	H-g-3 H-c C-a-1 C-b G-b, H-a-1+2	或不赤不熱而作疼痛是無上熱-去百合芍藥加桂枝	D-c-1
			茯苓石膏湯	治濕熱熏蒸目珠黃赤者	白茯苓 澤瀉 梔子 甘草 半夏 石膏	培土滲濕 降胃氣 清金瀉熱 利水瀉熱	A-d-2 G-b, H-a-1 H-g-1 E		
			桂枝丹皮首烏湯	治昏花不明而無赤痛者	桂枝 牡丹皮 何首烏 甘草 白茯苓 半夏 乾薑 龍眼肉	達肝木行瘀血 降胃氣 溫中燥濕 滋風木	D-f G-b, H-a-1 C-b G-e		
			桂枝菖蒲湯	治瞳子縮小者	柴胡 桂枝 牡丹皮 生薑 甘草 菖蒲	肅降肺氣 理中益氣 清肝鬱火	D-f A-c-2 D-a-5		
			烏梅山茱湯	治瞳子散大者	五味 烏梅 山茱 甘草 何首烏 白芍藥 龍骨 牡蠣	肅降肺氣 滋風木 斂心神降膽氣	H-d D-e G-c-3		
			苓桂薤苈首烏湯	治目珠塌陷者	人蔘 桂枝 甘草 白茯苓 何首烏 乾薑	達木扶陽 溫中燥濕 滋風木	D-c-2 C-b D-e		
	耳目根源	耳病根源	芍藥棗仁柴胡湯	治目珠突出者	白芍藥 甘草 何首烏 棗仁 柴胡 牡丹皮	滋風木 破瘀血 清肝鬱火	D-e D-g D-a-5		
			柴胡芍藥茯苓湯	治耳內熱腫疼痛者	白芍藥 柴胡 白茯苓 苓 半夏 甘草 桔梗	降胃氣+泄木邪 降胃氣 清肝鬱火	H-a-1+2 G-b D-a-5	膿盛-牡丹皮桃仁	D-g
			苓甘芍藥湯	治耳流黃水者	白茯苓 澤瀉 半夏 杏仁 柴胡 白芍藥	降胃氣 降濁疏鬱 清肝鬱火	G-b, H-a-2 H-e-3 D-a-5		
	鼻口根源	鼻病根源	參苓五味芍藥湯	治耳漸重聽者	白茯苓 半夏 甘草	降胃氣+緩迫急	G-b, H-a-1		
			桔梗元蔘湯	治肺氣鬱升鼻塞涕多者	桔梗 元蔘 杏仁 橘皮 半夏 白茯苓 甘草 生薑	利肺氣 降胃氣 清金益水	H-e-1 G-b, H-a-1 H-g-4		
			五味石膏湯	治肺熱鼻塞濁涕粘黃者	五味子 石膏 杏仁 半夏 元蔘 白茯苓 桔梗 生薑	降竅肺胃之逆 清金益水 降濁疏鬱 降胃氣	H-c H-g-4 H-e-3 G-b	胃寒-乾薑	A-e-1
			黃芩貝母湯	治鼻孔發熱生瘡者	黃芩 柴胡 白芍藥 元蔘 桔梗 杏仁 五味子 貝母	瀉肝膽 清金益水 清肺 肅降肺氣	G-c-1 H-g-4 H-b H-d		
	鼻口根源	鼻病根源	苓澤薑蘇湯	治鼻塞聲重言語不清者	白茯苓 澤瀉 生薑 杏仁 甘草 橘皮 紫蘇葉	培土滲濕 行氣瘀濁 利肺氣	A-d-2 H-k H-e-1		

丑2-8

藏府間的寒熱燥濕에 따른 治法과 代表藥物 分析表에 의한 方劑조사

篇名	細目	病證	處方名	主治症	구성약물	적용된 治法分析	藏府寒熱燥濕 表分析	加 減	藏府寒熱燥濕 表分析	
七厥解	鼻口 根源	口病 根源	甘草黃芩湯	治濕熱熏蒸 口氣穢惡者	甘草 黃芩 白茯苓 半夏 石膏	降胃氣 清心退熱 清金瀉熱	G-b, H-a-1 F-a-3 H-g-1			
			貝母元參湯	治口瘡熱腫	貝母 元參 甘草 黃芩	清金益水 清心退熱	H-g-4 F-a-3	熱甚-黃連石膏	F-a-1.H-g-1	
			桂枝薑苓湯	治脾胃濕寒 膈火上炎而生 口瘡者	白芍藥 桂枝 乾薑 白茯苓 甘草 元參	達木清風 溫中燥濕 清金益水	H-g-4 D-a-4 C-b			
	舌病	芩連芍藥湯	治舌瘡疼痛熱 腫	黃芩 黃連 甘草 貝母 牡丹皮 白芍藥	瀉脾而清相火 清上熱 破瘀血 清瀉肺	G-c-2 F-a-1 D-g H-b				
		桂枝地黃湯	治肝燥舌卷者	桂枝 白芍藥 生地黃 阿膠 當歸 甘草	滋風木 達木清風 活血滋肝	D-e D-a-4 D-a-3				
	牙痛	黃芩石膏湯	治牙疼齲腫	黃芩 石膏 甘草 半夏 升麻 白芍藥	瀉脾而清相火 清金瀉熱 降胃氣 升提手陽明之墜陷	G-c-2 H-g-1 G-b, H-a-2 I-c-3				
		柴胡桃仁湯	治蟲齒	柴胡 桃仁 石膏 骨碎 補	達木清風 清金瀉熱 破瘀血	D-a-4 H-g-1 D-g				
	咽喉	甘草桔梗射干湯	治咽喉腫痛生 瘡者	甘草 桔梗 半夏 射干	降胃氣+緩迫急	H-a-1				
		貝母升麻鼈甲湯	治濕旺氣鬱 聲音不良者	白茯苓 半夏 杏仁 百合 橘皮 生薑	行氣瘀濁 利肺氣 瀉熱清金 降胃氣	H-k H-e-1 H-g-3 G-b				
	髮鬚	桂枝柏葉湯		何首烏 桂枝 牡丹皮 生地黃 柏葉 生薑 參 阿膠	滋風木 達木扶陽 活血降肝 達肝木行瘀血	D-e D-c-2 D-a-3 D-f	黃蘗早白-桑椹黑豆 *陽衰土濕者-乾薑白 茯苓 *肺氣不充-重用 黃 芪-肺主皮毛故也	C-b H-f		
桂枝丹皮紫蘇湯		治癰疽初起	桂枝 白芍藥 甘草 牡丹皮 蘇葉 生薑	達木清風 達肝木行瘀血 理中益氣	D-a-4 D-f A-c-2	*不得汗-青萍-發之 *表熱太盛-地黃天門 冬-涼瀉經絡之鬱 *衛氣太虛-黃芪-益 其經氣	D-a-3 H-f			
癰疽解	癰疽 根源	丹皮黃芪湯	治皮肉癰腫 癰疽已成者	桂枝 桃仁 甘草 桔梗 牡丹皮 生薑 元參 黃芪	達肝木行瘀血 破瘀血 清金益水	D-f D-g H-g-4	*熱盛-重用 黃芪天 門冬地黃			
		排膿湯	治膿成熱極 皮肉腐爛者	甘草 桔梗 生薑 大棗	理中益氣	A-c-2				
		桂枝人蔘黃芪湯	治膿泄熱濕 營衛虛者	人蔘 黃芪 桂枝 甘草 常歸 白芍藥 白茯苓 牡丹皮	益氣生水 達肝木行瘀血 達木清風 涼血滋肝 培土瀉濕	H-f D-f D-a-4 D-a-1 A-a				
		黃芪人蔘牡蠣湯	治膿泄後潰爛 不能收口	黃芪 人蔘 甘草 五味 子 生薑 白茯苓 牡蠣	益氣生水 理中益氣 瀉肺降氣 補中燥濕 斂心神降膽氣	H-f A-c-2 H-d A-a G-c-3				
		仙靈膏								
		大黃牡丹湯	治疽近腸胃 內熱鬱蒸者	大黃 芒硝 冬瓜子 桃仁 牡丹皮	破瘀血	D-g				
		黃芪苓桂乾薑湯	治陰盛內寒 及者 膿清熱微	人蔘 黃芪 甘草 白茯苓 桂枝 乾薑 牡丹皮	益氣生水 達肝木行瘀血 培土燥濕 溫中燥濕	H-f D-f A-d-2 C-b				
		仙掌丹		斑貓 前胡 乳香 沒藥 血竭 元參 水片 麝香						
	瘰癧 根源	紫胡芍藥半夏湯	治瘰癧	紫胡 白芍藥 元參 甘草 半夏 牡丹皮 牡蠣 紫甲	降胃氣+散結鬱 清金益水 斂心神降膽氣 清木火斂膽 破瘀血	H-a-2+3 H-g-4 G-c-3 F-a-2 D-g	*上熱甚者-黃芩地黃 *血虛木燥-何首烏 *腫痛-貝母 *膿成-桔梗	F-a-6 D-e H-g3(H-g-5)		
	癩風 根源	紫蘇丹皮地黃湯		蘇葉 生薑 甘草 牡丹皮 白芍藥 地黃	破瘀血 理中益氣 清木火斂膽 涼血滋肝	D-g A-c-2 F-a-2 D-a-3	*不得汗-青萍-發之			
痔漏 根源	茯苓石脂湯	治痔漏腫痛下 血	白茯苓 牡丹皮 桂枝 赤石脂 升麻 甘草 乾薑	瀉脾濕而清肝熱 達木清風 達肝木行瘀血 升提手陽明之墜陷 溫中燥濕	D-b D-a-4 D-f I-c-3 C-b	*肛熱-黃連 *木燥-阿膠	F-a-1 D-a-2			

篇名	細目	病證	處方名	主治症	구성약물	작용원 治法分析	藏府寒熱燥濕表 分析	加 減	藏府寒熱燥濕表分析	
婦人解	經脈根源	閉結	桂枝丹皮桃仁湯	治閉結	桂枝 白芍藥 牡丹皮 桃仁 甘草 白茯苓 丹蔘	達木清風 破瘀血 達肝木行瘀血 培土瀉濕	D-a-4 D-g D-f A-a	*上熱-黃芩 *中寒-乾薑 *中氣不足-人蔘 *血塊堅硬-龜甲蟄蟲 *佛膠-砂仁	F-a-3 A-e-1 A-c-1 D-g A-e-2	
		崩漏	桂枝薑苓湯	治經漏	甘草 白茯苓 桂枝 白芍藥 乾薑 牡丹皮 何首烏	達木清風 達肝木行瘀血 滋風木 瀉中燥濕	D-a-4 D-f D-e C-b			
			桂枝薑苓牡蠣湯	治血崩	甘草 白茯苓 桂枝 白芍藥 乾薑 牡丹皮 何首烏 牡蠣	達木清風 達肝木行瘀血 斂心神降膽氣 瀉中燥濕 滋風木	D-a-4 D-f G-c-3 C-b D-e	氣虛-人蔘	A-c-1	
		先期後期	桂枝薑苓湯	治經水先期	牡丹皮 甘草 白茯苓 何首烏 乾薑 桂枝 白芍藥	瀉中燥濕 達肝木行瘀血 達木清風 滋風木	C-b D-f D-a-4 D-e			
			薑苓阿膠湯	治經水後期	牡丹皮 甘草 桂枝 白茯苓 乾薑 丹蔘 何首烏 阿膠	瀉中燥濕 達肝木行瘀血 滋風木	C-b D-f D-e			
		結瘀紫黑	苓桂丹蔘湯		牡丹皮 甘草 乾薑 白茯苓 桂枝 丹蔘	瀉中燥濕 達肝木行瘀血 破瘀血	C-b D-f D-g			
		經行腹痛	苓桂丹蔘湯	治經前腹痛	牡丹皮 甘草 丹蔘 乾薑 桂 枝 白茯苓	瀉中燥濕 達肝木行瘀血 破瘀血	C-b D-f D-g			
			歸地芍藥湯	治經後腹痛	當歸 地黃 甘草 桂枝 白茯 苓 何首烏 白芍藥	達木清風 培陽神之源 滋風木 培土瀉濕	D-a-4 D-d D-e A-a			
		熱入血室	柴胡地黃湯	治熱入血室	柴胡 黃芩 甘草 白芍藥 牡 丹皮 熟地黃	瀉膽而清相火 破瘀血 滋風木	G-c-2 D-g D-e	*表未解者-蘇葉生薑		
		雜病根源	帶下	溫經湯	治婦人帶下 及 少腹寒冷 久不 受胎 或崩漏下 血 或經來過多 或至期不來	人蔘 甘草 乾薑 桂枝 白茯 苓 牡丹皮 當歸 阿膠 麥門 冬 白芍藥 吳茱萸 半夏	達木清風 清君相火 滋風木 補血養肝 達木而扶陽 瀉中燥濕 降胃氣	D-a-4 G-a-5 D-e D-a-2 D-c-2 C-b G-b, H-a-1+2	*除精流瀉-牡蠣 *瘀血堅硬-桃仁龜甲	G-c-3 D-g
			骨蒸	苓桂柴胡湯		白茯苓 甘草 牡丹皮 桂枝 白芍藥 柴胡 半夏	達木清風 達肝木行瘀血 清肝鬱火 培土瀉濕 降胃氣緩迫急	D-a-4 D-f D-a-5 A-a G-b, H-a-1	*熱蒸不滅-生地黃芩 *蒸透-即用乾薑附子 -溫水土	F-a-6 C-a-1
		胎解	產後根源	結胎	豆蔻苓砂湯	治胎孕初結 惡 心嘔吐 昏暈燥 渴	白豆蔻 杏仁 甘草 砂仁 白 芍藥 牡丹皮 白茯苓 橘皮	利肺氣 培土瀉濕 破瘀血 滋風木	H-e-1 A-a D-g D-e	*內熱-清涼之味 *內寒-溫散之品
墮胎	薑桂苓砂湯				甘草 人蔘 白茯苓 乾薑 桂 枝 牡丹皮	達肝木行瘀血 瀉中燥濕 達木而扶陽	D-f C-b D-c-2	*腹痛-砂仁白芍藥	A-e-2 F-a-2	
胎漏	桂枝地黃阿膠湯			治妊娠下血 腹 痛者	甘草 地黃 阿膠 當歸 桂枝 白芍藥 白茯苓 牡丹皮	達木清風 滋風木 達肝木行瘀血 培土瀉濕	D-a-4 D-e D-f A-a			
	桂枝茯苓湯			治妊娠下血 癥 塊連胎者	桂枝 白茯苓 甘草 牡丹皮 白芍藥 桃仁	達木清風 破瘀血 培土瀉濕 達肝木行瘀血	D-a-4 D-g A-a D-f			
桃仁鱉甲湯	治瘀血蓄積 木 鬱腹痛者			桃仁 鱉甲 牡丹皮 丹蔘 桂 枝 甘草	破瘀血 達肝木行瘀血	D-g D-f	*內熱-生地 *內寒-乾薑	D-a-3 A-e-1		
桂枝牡丹皮桃仁湯	治陣虛肝燥 木 鬱剋土 腹痛食 減 渴欲飲水者			桂枝 白芍藥 甘草 牡丹皮 地黃 當歸	達木清風 清風潤木 達肝木行瘀血 破瘀血 滋風木	D-a-4 D-a-1 D-f D-g D-a-3	*氣虛-人蔘 *水寒土濕-乾薑白茯 苓	A-c-1 C-b		
桂枝括萎首烏湯	治風傷衛氣 而 病柔痙 發熱汗 出者			桂枝 白芍藥 瓜蒌根 何首 烏 生薑 大棗 甘草	達木清風 理中益氣 滋風木	D-a-4 A-c-2 D-e				
葛根首烏湯	治寒傷榮氣 而 病剛經 發熱無 汗者			桂枝 白芍藥 甘草 葛根 麻 黃 何首烏 生薑 大棗	達木清風 理中益氣 滋風木	D-a-4 A-c-2 D-e				
桂枝茯苓人蔘湯	治陽虛鬱冒			人蔘 甘草 白茯苓 桂枝 生 薑 大棗	達木扶陽 理中益氣 培土瀉濕	D-c-2 A-c-2 A-a				
茯苓杏仁湯	治津虧 木燥 大便艱難			甘草 杏仁 白蜜 肉苁蓉	理中益氣 降濁瀉鬱 滋大腸	l-a A-c-2 A-a				
薑桂苓砂湯	治飲食不消			白茯苓 甘草 乾薑 桂枝	瀉中燥濕 理中益氣 疏木行鬱	C-b A-c-2 D-c-1				

3. 이들 方劑분석을 통하여 黃元御가 가장 중점을 둔 藏府와 治法을 파악하였다(표.3-1~2) 用藥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藏府와 治法에 의거하여 黃元御의 인체생리관을 파악하였다. 이表에 의거하면 黃元御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藏府는 氣機升降圓運動의 左半圓에서는 腎·脾·肝 中에서도 160의 횡수로 肝의 燥濕寒熱과 그의 治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右半圓에서는 心·胃·肺中에서 112의 횡수로 肺의 燥濕寒熱과 그의 治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1 《四聖心源》의 藏府寒熱의 治法의 빈도 分析表

藏府의 寒熱燥濕病理	治 法	代表藥物	사용빈도	합
<b>A.脾(土濕)</b>				84
a.脾土濕	培土瀉濕	白茯苓	27	
b.中虛脾濕	補中燥濕	白朮	5	
c.中氣虛	c-1.培中氣	人蔘	10	
	c-2.理中益氣	甘草	23+ *	
d.脾濕旺	d-1.燥土, 瀉濕	澤瀉	2	
	d-2.培土滲濕	甘草+白茯苓+澤瀉	12	
e.脾陽虛	e-1.溫中行鬱	乾薑	2	
	e-2.達脾陽	砂仁	3	
<b>B.腎(水寒)</b>				4
a.腎水寒(下寒)	a-1.溫腎水	附子+川椒	2	
	a-2.暖水燥土	附子	1	
	a-3.暖水行鬱	附子+砂仁	1	
<b>C.脾+腎(脾濕腎寒)</b>				41
a.腎寒脾濕(水寒土濕)	a-1.暖脾溫腎	乾薑+附子	7	
	a-2.培土溫寒	白朮+甘草+附子	1	
b.中下濕寒	溫中燥濕	乾薑+白茯苓	32	
c.氣泄陽亡,厥逆寒冷	c-1.續微陽	人蔘+黃芪+乾薑+附子	1	
	c-2.祛寒濕	吳茱萸+澤瀉		
<b>D.脾+腎+肝(脾濕腎寒肝熱)</b>				160
a.木氣下鬱,風木枯燥	a-1.補肝血,清風潤木	當歸, 川芎+當歸	5	
	a-2.補血滋肝	阿膠	6	
	a-3.涼血滋肝	生地黃	8	
	a-4.達木清風	桂枝+白芍藥	35	
	a-5.清肝鬱火	柴胡	11	
b.濕旺木鬱而生下熱	瀉脾濕而清肝熱	培白茯苓 白芍藥 加澤瀉牡丹皮	1	
c.肝氣(木氣)下陷	c-1.疏木行鬱(達木升陷)	桂枝	10	
	c-2.達木而扶陽	人蔘+桂枝	12	
d.肝血虛弱 不能生化	培陽神之源	當歸+地黃+白何首烏	1	
e.血枯木燥	滋風木	白芍藥+阿膠+當歸, 白芍藥+何首烏+當歸, 白芍藥+阿膠+當歸+地黃+何首烏	21	
f.肝血鬱	達肝木行瘀血	桂枝+牡丹皮	25	
g.血鬱痛作	破瘀血	牡丹皮, 牡丹皮+桃仁	25	
<b>E.脾+腎+肝+膀胱(脾濕腎寒+肝熱+膀胱熱)</b>				5
下熱(膀胱熱)	清心火瀉脾土,利水瀉熱(膀胱熱)	梔子	5	

F.脾+腎+肝+心+膽(脾濕腎寒+肝熱+心熱+膽熱)				
a.心火上炎(上熱)	a-1.清上熱 a-2.清木火斂膽 a-3.清心退熱 a-4.清膽火 a-5.清君相火 a-6.清風瀉火(相火)	黃連+白芍藥 白芍藥 黃芩 培白芍藥 麥門冬+白芍藥 阿膠+地黃+黃芩	3 3 3 3 3 1	13
G.脾+腎+肝+心+胃+膽(脾濕腎寒肝熱心熱+胃燥+膽熱)				
a.相火極旺	清相火	加黃芩培白芍藥		43
b.胃氣上逆	降胃氣	白茯苓+半夏	25	
c.肝膽火	c-1.瀉肝膽 c-2.瀉膽而清相火 c-3.斂心神(藏精)降膽氣	白芍藥+柴胡+黃芩 黃芩+白芍藥 牡蠣	4 4 10	
H.脾+腎+肝+心+胃+膽+肺				
a.胃逆則肺膽俱無降路	a-1.降胃氣+緩迫急 a-2.降胃氣+泄木邪 a-3.降胃氣+散結鬱	+ 甘草 半夏 +白芍藥 +柴胡+鱉甲	30 14 3	112
b.膽火刑金	清膽肺	白芍藥+貝母	4	
c.肺胃之逆	降攝肺胃之逆	半夏+五味子	9	
d.肺氣不降	肅降肺氣	五味子	5	
e.肺氣滯	e-1.利肺氣 e-2.降逆疏壅 e-3.降濁疏鬱	陳皮+杏仁 橘皮, 杏仁	8 3 5	
f.熱傷肺氣 不能化水	益氣生水 以培陰精之源	人蔘+黃芪	4	
g.肺熱	g-1.清金瀉熱 g-2.涼肺熱降心火 g-3.瀉熱涼金 g-4.清金而益水 g-5.清肺熱	石膏 麥門冬 百合, 百合+貝母 元蔘 麥門冬+貝母	5 2 4 9 1	
h.肺鬱生熱	清心肺	麥門冬+石膏	1	
i.上傷燥熱 下病濕寒 燥熱在肺肝之經 濕寒在脾胃之藏	i-1.瀉濕燥土+清風疏木 i-2.瀉濕燥土+溫腎水之寒 i-3.瀉濕燥土+斂腎精之泄	白茯苓+澤瀉+地黃+牡丹皮 白茯苓+澤瀉+附子 白茯苓+澤瀉+山藥+山茱萸	1 1 1	
j.脾肺濕旺化生鬱濁腐敗粘膠不得下行	j-1.行其痰飲 j-2.下痰飲	瓜蒂散 續隨子仁		
k.痰盛	行氣瘀濁	白茯苓+橘皮+生薑取汁	2	
l.胃寒	l-1.溫胃 l-2.驅寒邪而達木鬱	乾薑+川椒+附子 乾薑+川椒+附子+桂枝		
I.脾+腎+肝+心+胃+膽+肺+小腸+大腸				
a.土濕胃逆閉鬱痰盛 不能生化	滋大腸	肉蓯蓉	1	16
c.肝木鬱陷關竅阻塞 疏泄之令不行	c-1.溫中破滯 益脾陽以開腸竅 c-2.瀉大腸滯氣 c-3.升提手陽明之墜陷	乾薑+砂仁 杏仁+橘皮 升麻		
d.閉鬱痰盛不能生水以滲膀胱而土濕木鬱疏泄不行	瀉濕疏木	白茯苓+澤瀉+桂枝, 豬苓+滑石, 桂枝+阿膠		

\*甘草의 사용도는 매우 많아 모두 다 수록하지는 않았슴. 정확한 빈도는 산출하지 않았으나 조사의 목적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었슴.

## IV. 考 察

이들 方劑분석을 통하여 黃元御가 用藥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藏府와 治法을 파악한 결과표에 의거하면(표3-1~2)黃元御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藏府는 氣機升降圓運動의 左半圓에서는 腎,脾,肝 中에서도 160의 횡수로 肝의 燥濕寒熱과 그의 治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右半圓에서는 心,胃,肺 中에서 112의 횡수로 肺의 燥濕寒熱과 그의 治法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氣機升降의 左半圓에서는 腎水溫, 脾土燥, 肝木溫升의 기전이, 右半圓에서는 心火清, 胃土濕, 肺金涼降의 기전이 필요하다.<sup>15,16)</sup> 黃元御의 肝과 肺에 중점을 두고 또한 그의 治法에 중점을 두고 있는 치료관이 어떻게 확립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四聖心源》의 全篇에 언급된 生理·病理觀을 조사해보는 과정에서 그의 中氣와 相火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1. 中氣의 生理·病理 및 治法에 대한 考察

인체는 陰陽升降운동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場이다. 黃元御는 氣化理論으로 藏府의 生理와 病理를 연구하며 升降을 주관하는 것이 中氣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中氣의 脾胃升降을 중시하여 자신의 인체관형성의 이론적 근거를 삼고 있다.<sup>2)</sup>

#### 1) 中氣의 生理的 側面 考察

中氣의 生理的 側面은 氣血精神과의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中氣는 곧 脾胃의 升降運動氣機를 말함이니 中氣가 健運하면 胃가 降하여 善納하고 脾가 升하여 善磨하게 되니 水穀이 腐熟하여 精氣가 滋生하여 病이 없게 된다, 그래서 藏府가 養함을 얻게되면 脾가 上升하는데 腎과 肝이 역시 升하게 됨으로서 水(腎)와 木(肝)이 鬱하지 않게 되고, 胃가 下降하는데 心과 肺가 같이 下降하게 됨으로써 金(肺)과 火(心)가 滯하지 않게 된다. 곧 中氣의 升降이 정상적이면 心은 下降

하여 上熱하지 않게 되면서 腎이 溫하게 되고, 腎이 上升하여 下寒하지 않으면서 心이 上熱하지 않게 되며, 肝은 上升하여 下鬱하지 않게 된다. 곧 中氣의 정상적인 升降은 肝心肺腎의 升降作用을 정상적으로 運行하게끔 것이다.<sup>1)</sup>

黃은 氣化理論으로써 藏府의 生理를 연구하였으며<sup>9)</sup> 거듭 後天의 氣, 즉 脾胃의 中氣가 藏府의 氣化活動中の 中樞的인 作用이 있음을 闡發하였다. 陰陽升降을 주도하는 것이 中氣이며 中氣의 표현은 脾(主升)과 胃(主降)이다. 脾의 升에 의해 腎의 陽이 升하고 이어서 肝의 陽(魂 또는 溫한 血)이 升하게 되며 끝으로 心의 神으로 化한다. 이 과정을 左旋이라 한다. 胃의 降에 의하여 心陰이 下降하며 이 과정에서 肺氣의 肅降작용이 발생하며 끝으로 腎陰으로 化한다. (陰中에 陽이 간직 저장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右旋이라 한다. 모든 과정은 脾와 胃에 의해 일어난다. 모든 升降의 失調에는 脾와 胃의 升降失調가 수반된다. 이 脾胃의 升降調節機能을 中氣가 주도한다. 인체 生理는 기본적으로 中氣인 脾胃土가 조절한다. 즉 中氣인 脾胃土의 燥濕의 均衡이 정상적인 升降運動이 이루어지게 되는 기본이다.<sup>2,13)</sup>

이는 人身의 眞陰은 離卦의 中爻인 心陰이며, 眞陽은 坎卦의 中爻인 腎陽에 있다는 견해에 바탕하고 있다.<sup>17)</sup> 또한 水火에는 戊己의 性情이 간직되어 있어 水火의 陰陽升降운동은 결국 戊己의 功에 의거한다는 三家相見의 견해<sup>18)</sup>와도 같은 一脈相通한다고 본다.

#### 2) 中氣의 病理的 側面 考察

中氣의 病理的 側面은 中氣의 虛損에 관한 설명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만약 中氣가 虛損하여 脾胃의 轉運升降이 主함이 없게 되거나 혹은 陰이 旺하고 濕이 旺하면 濕이 문득 乖鬱하여 不運하게 되니 곧 脾가 上升하지 못하여 清氣가 항상 무너지게 되고 胃가 下降하지 못하면 濁氣가 上逆하게 된다고 하였다.<sup>2)</sup> 이는 인체 病理는 기본적으로 土濕과 中氣虛로 말미암은 中氣昇降失調라고 인식하였는데<sup>2)</sup> 이 中氣升降失調는 脾陽

虛에 있다고 하였다. 만약 脾陽이 不足하게 되면 즉 中氣가 不運하며 脾가 陷하고 胃가 逆하여 氣機의 升降이 반대로 작용하니 水木은 아래로 陷하게 되어 寒病이 되고 金火는 윗쪽으로 逆하여 熱病이 생기고 만약 中氣가 虧虛하여 中樞가 不運하면 肝脾가 왼쪽에서 陷하고 肺胃가 오른쪽에서 逆하여 심한 즉 陰陽이 離決하고 精神이 分散하게 되니 百病이 말미암아 發生하여 죽게 된다<sup>2,6)</sup>고 하였다. 이는 中氣升降이 失調하게 되면 반드시 四維가 運行하지 못하여 升降이 막히게 되어 病이 발생한다고 한 것이다.(표4)

표4 中氣升降失調機轉表

中氣升降失調：脾陽虛(土濕)-->中氣不運
脾陷--水木下陷==>寒病
-->
胃逆--火金上逆==>熱病

黃은 中氣升降失調의 病理的인 觀點으로 一切의 外感, 內傷, 雜病의 病機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四聖心源·六氣解·六氣偏見》의 “一切의 內傷과 外感의 傷寒과 雜病은 모두 土濕으로 因한다”<sup>1,2)</sup> 라하여 ‘土濕水寒’, ‘土敗陽衰’에 허물을 돌리는 것으로 立論의 근거를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sup> 즉 脾胃의 升降失調는 脾氣下陷과 胃氣上逆으로 나타나며 만약 腎이 寒하게 되면 腎水는 不升하게 되고 肝木은 鬱結되어 下陷하게 되어 血寒 또는 血瘀를 발생하고 더 진행되면 鬱結로 인하여 風이 일어나 下熱을 발생하여 肝木이 燥하게 되는 상태를 가져온다. 즉 水濕水寒은 肝木의 鬱結을 초래하여 下寒과 때로는 下熱을 발생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下熱은 肝의 實熱이 아니라 脾濕腎寒에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寒은 脾腎에 熱은 肝에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心에서는 虛熱이 上炎하게 되며, 肺에서는 肺不肅降으로 인한 濁陰의 停滯와 君相二火의 上炎으로 인한 肺의 燥를 초래하게 된다.<sup>1)</sup>

### 3) 中氣의 治法 考察

黃은 《四聖心源·勞傷解·中氣》에서 “中氣는

二土의 交叉하는 가운데에 있으니 土는 火에서 生하나 火는 水에서 滅하니 火가 盛한 즉 土는 燥하게 되고 水가 盛한 즉 土가 濕하여지니 泄水補火, 扶陽抑陰하여 中氣로 하여금 輪轉시키면 清濁이 다시 위치를 잡게 되니 病을 물리치고 延年하는 법이 이것보다 妙한 法이 없다.”<sup>1,2)</sup> 고 하였으니 이는 陽明燥氣가 太陰濕土를 勝하지 못하여 陽虛陰盛하여 土濕이 자연히 旺盛하게 되는데 土濕이 中氣의 升降作用을 失調시켜 百病을 발생한다고 인식함으로서 泄水補火, 燥濕運土로 土濕을 治하고 陽虛陰盛을 治하기 위한 扶陽抑陰 등 세가지를 用藥의 一大 治法으로 삼았다.<sup>2)</sup>

이러한 治法을 바탕으로 藏府를 치료하는 방법은 心火上炎에는 마땅히 清降하고 肺金上逆에는 마땅히 肅降하여야 하나 胃土의 右轉에 의거함을 궁구히 하여 모든 上病을 치료하는 법칙에 ‘降’字를 강조하였는 데 이는 心肺가 윗쪽에 위치하니 天道를 따르는데 天道는 下降하는 것이 順이 되기 때문이요, 腎水下寒은 마땅히 溫暖하게 하여야 하며 肝木下陷은 마땅히 升達케 하여야 하나 脾土의 左旋에 의지하므로 모든 下病을 치료하는 법칙에 ‘升’字를 闡發하였으니 이는 肝腎은 아래에 위치하여 地道를 따르는데 地道는 升하면 곧 健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다.<sup>2,7)</sup>

이를 考察해보면 病의 근원적인 원인은 항상 中氣의 運行的 失調로 표현되는 脾胃의 升降의 失調이다라고 볼 수 있다. 脾胃의 升降의 失調는 脾氣下陷과 胃氣上逆이라는 病理로 집약된다. 모든 處方에 升降을 運轉해주는 中氣를 고려하며 그 기능의 표현으로 脾胃를 다스리는 약물을 君藥으로 고려하고 있다. 腎은 주로 寒, 肝은 鬱로 인한 下陷과 鬱되어 風이 발생됨으로 인한 肝의 燥, 心은 虛熱, 肺는 不降으로 인한 濁陰의 停滯를 나타내기 때문에 上熱을 다스리는 약은 佐藥으로 들어가 있다. 本治의 대상은 脾胃로 대표되는 中氣의 回復이며, 標治의 대상은 腎 肝 心 肺이다. 결국 모든 처방은 急할경우에는 標를 중시하여 치료하는 경우와 本을 치



료하는 경우의 두가지로 요약된다. 다만 標를 치료하는 약은 本治가 될 수 없다. 標의 증상이 사라지면 곧 바로 本治를 해야 한다는 立場을 견지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本治의 대상은 脾胃로 대표되는 水寒土濕의 상태이고, 標治의 대상은 腎 肝 心 肺이다.

人蔘, 乾薑이 “崇陽補火”의 효능을 갖는다고 할 때의 陽, 火는 바로 腎과 脾의 陽, 火이다. 즉 中焦와 下焦의 陽火를 말함이지 上焦의 陽火를 말함이 아니다. 그래서 黃連, 芍藥같은 찬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心火, 즉 上焦의 火를 瀉하는 약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抑陽瀉火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崇陽補火라고 해야 할 것이다. 黃元御의 치료는 藏府氣機升降의 方向性を 回復하는데 目的이 있다. 이 方向을 充足시키는 모든 治法이 바로 “崇陽補火”이지 꼭 따뜻한 藥만을 써야 한다는 이론은 아니다. 다시 말해 찬 약이라 할 지라도 그것이 氣機升降의 方向性を 充足시키면 그것은 바로 “崇陽補火”의 治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上焦의 火에 대해서는 찬 약을 쓸 수 있다. 하지만 下焦에 대해서는 찬 약은 陽의 뿌리를 뽑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慎重해야 한다.(표5)

표5 中氣의 治療觀

心火上炎	---> 清降시켜야 하며
上部病	마땅히 胃土의 下降에 의뢰해서
肺金上逆	---> 肅降시켜야 한다.
腎水下寒	---> 溫暖하게 하여야 하며
下部病	마땅히 脾土의 上升에 의뢰해서
肝木下陷	---> 升達시켜야 한다.

특히 黃元御는 甘草 桂枝 白芍 白茯苓 乾薑 半夏 陳皮 등의 약물을 處方に 있어서 사용함이 비교적 많았는데 특히 甘草, 桂枝, 白茯苓을 모든 처방에 80%정도로 사용하였다.<sup>2,6)</sup> 甘草로 中氣를 補하고 白茯苓으로 土濕을 제거하고 桂枝로 達木升陷, 疏木行鬱시키니 이것들은 中氣升降을 回復시키는 기본적인 藥物로 보아 多用하였으리라고 사료된다.<sup>2)</sup> 대개 執中培土를 本治하

는 治療大法으로 하여 시종일관 中氣를 變理하였으니 이는 脾陽의 升運을 貴하게 여기고 中氣가 流通함을 貴히 여겼음을 알 수 있다.<sup>2,7)</sup>

## 2. 中氣와 相火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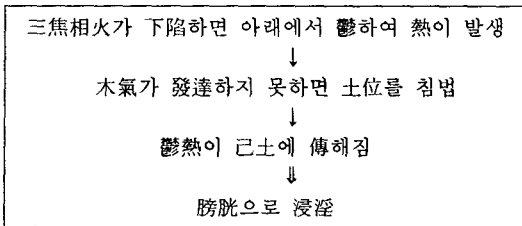
### 1) 中氣와 相火의 生理와 病理 考察

그렇다면 脾胃土가 중요한데 土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즉 土和하고 戊己轉運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土는 생리적으로 火에서 生하지만 그 火는 水에 의해 消滅된다. 그렇다면 土의 건강함은 水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한번 더 생각해서 水의 寒熱旺衰는 누가 조절하는가? 水가 寒하지 않고 濇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機轉이 필요한가? 이는 다시 土로 돌아간다. 火氣가 收斂되어 腎에 蟄藏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火를 밖으로 泄하지 않고 간직 저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 火를 간직 저장하는 과정이 胃降으로 인한 火金의 收藏이다. 胃降을 통해 火는 아래로 下降하여 腎에 蟄藏되어 腎水를 따뜻하게 데워 脾土에 의하여 上升할 수 있는 底力이 된다. 火가 저장되어야만 土가 濕하지 않게 된다. 土가 濕하지 않게 되어야 腎水を 肝木으로 上升시킬 수 있다. 上升되는 腎水가 곧 火로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黃元御가 一切內傷雜病의 원인으로 脾濕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 실제 主眼點은 오히려 火를 간직 저장하는데 더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黃元御의 “陰陽之要 陽密乃固 陰平陽秘 精神乃治”<sup>3)</sup>의 관점으로 陰陽이 和平하기 위해서는 陽이 아래로 下降하여 蟄藏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癸水가 숨겨 간직할 수 있어 相火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腎은 溫暖함을 간직하여 相火가 맑고 和平해진다. 즉 胃를 下降시키는 治法은 바로 相火의 작용이 잘 이뤄지게 함이다. 相火는 아래에서 蟄藏되어야 하는데 相火가 蟄藏되게 되면 인체에서는 ‘下溫而上清’, ‘燥濕의 均衡’, ‘內溫而外清’ 등의 생리기능이 발현되게 된다. 즉 相火는 水

中의 火로서 腎水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脾土를 乾燥하게 하고 木을 통하여 上升하게 되면 火로 변하게 되는데 이를 手少陽三焦相火는 上升을 하는 생리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sup>1,13)</sup> 만약 相火가 上升하지 못하게 되면 下陷하게 되어 熱이 발생되어 膀胱으로 熱이 浸淫하게 된다. (표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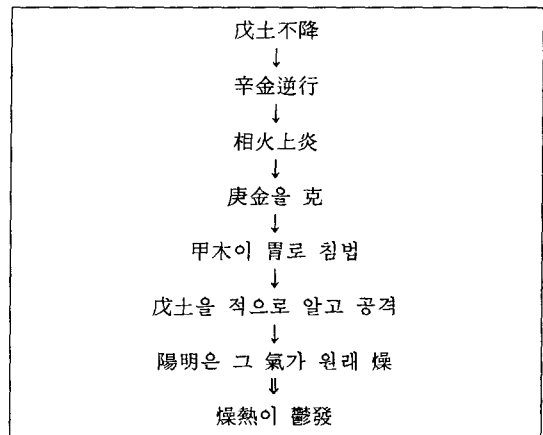
표6 相火不上升으로 起因된 肝熱이 膀胱으로 浸淫되는 機轉



相火는 手少陽에서 上升하고 足少陽에서 下降한다.<sup>1,13)</sup> 相火가 아래에 足少陰에 蟄藏되게 되면 水는 溫暖히 藏하고 水府가 淸利하여 遺尿와 閉隆이 되지는 않으니 水道가 調和로워 지는 것이다. 이 火가 한번 泄하면 膀胱에 下陷하여 實하면 下熱과 閉隆이 되고 虛하면 下寒과 遺尿가 된다. 手少陽은 淸하고 足少陽은 濁하다. 淸한 것은 上升해야 하고 濁한 것은 下降해야 한다. 手少陽이 病들면 上升하지 못하고 足少陽이 病들면 下降하지 못하니 대개 上熱의 證은 모두 甲木이 下降하지 못한 것이다.<sup>1)</sup> 이 相火가 下行하지 못하고 逆升하게 되는 것은 戊土가 下降하지 못하는 데에 原因이 있다. 戊土와 辛金은 서로 下降과 收斂을 주관하는 데 土가 降하면 金이 그것을 斂하고 相火가 下蟄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戊土가 下降하지 못하면 辛金이 逆行하여 收氣를 못하게 되니 相火가 上炎하게 된다. 戊土가 上逆하게 되면 濁氣가 올라가 막아 肺가 내려가는 길을 방해하게 되어 肺가 收斂을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膽火가 간직되지 못하게 된다. 즉 膽火가 뿌리 뽑혀서 上炎하게 되는 것이다. 相火가 逆行하여 庚金을 克하면 甲木이 胃로 침범하여 戊土를 역시 敵으로 알고

공격한다. 手足陽明의 그 氣가 본래 燥한데다 木火가 서로 刑罰을 加하는 셈이니 燥熱이 鬱發하게 된다.(표7) 上熱한 것은 相火의 逆이다. 足少陽은 相火를 좋아서 氣가 바뀌기 때문에 病들면 上逆하고, 手少陽은 相火로서 水를 주관하기 때문에 病들면 下陷하게 된다. 만약에 上熱이 있다면 반드시 下寒이 있게 된다. 이는 水火가 分離되어 사귀지 못한 까닭이다. 따라서 上熱이 있다면 반드시 中下의 寒濕을 고려해야 한다.<sup>1)</sup>

표7 胃土不降으로 인하여 上部에 燥熱이 鬱發되는 機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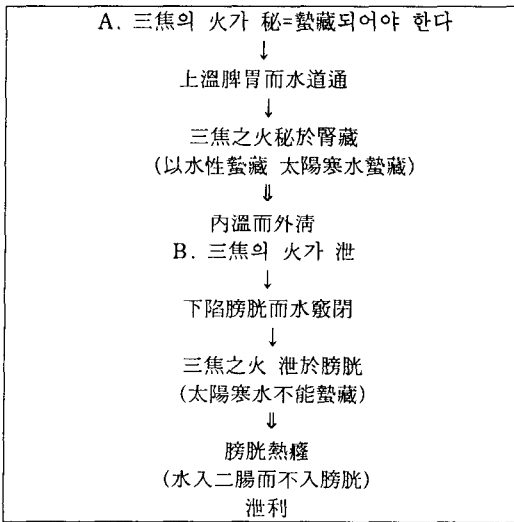


## 2) 中氣와 相火의 治療觀 考察

胃逆脾陷은 土濕에 연유한다. 그리고 土濕의 原因은 全的으로 寒水의 旺盛함에 있다. 寒水의 旺盛함은 相火가 腎水를 따뜻하게 데워주지 못함에 있다. 土가 水를 靚하지 못하게 되면 寒水가 泛濫하여 반대로 土를 遏抑시키게 된다. 土가 水의 적심의 피해를 입게 되면 이미 濕한데다 또한 寒하게 된다. 마땅히 燥土降逆으로 相火를 숨겨 간직하도록 해야 한다. 土가 燥하여 陽이 돌아오면 中氣가 運行되어 升降이 회복되어 水火가 뿌리로 돌아오게 되어 君相이 편안해 지어 膽이 건장해지고 神이 맑아진다. 따라서 黃元御의 '內溫而外淸'과 '下溫而上淸'이라는 생리관은 中氣의 升降이 中樞의인 役割을 하는데 中氣의 升降을 위해서는 相火가 蟄藏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疾病觀과 治療觀은 相火의 泄에

의하여 起因되는 火, 熱을 除去해내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火, 熱을 제거하는 것은 歷代醫家들이 가장 力點을 둔 내용이다.<sup>10)</sup> 즉 疾病을 중심으로 본 것이 아니고 질병자체가 惹起되고 發顯되는 主體의 틀을 중심으로 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胃氣下降에 의해서 膽이 下降하여야 相火가 下蟄될 수 있기 때문에 足少陽膽의 相火는 下降해야 정상이라는 黃元御의 견해는 少陽에는 相火가 寄하며 膽隨胃降한다는 생리관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진다.(표8)

표8 相火의 蟄藏과 泄로서 설명되는 生理와 病理 機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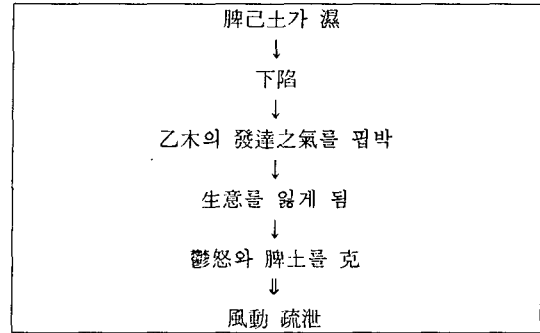
### 3. 氣機升降圓運動의 左半圓인 脾腎肝의 生理·病理 및 治法 考察

#### 1) 生理, 病理 考察

肝은 疏泄을 주관하며 血을 간직한다. 중요한 것은 肝木의 生意이다. 木氣의 上升은 전적으로 土에 의지한다. 土氣가 上升하지 못하면 木氣가 不達한다. 厥陰肝木은 腎水에서 生하고 脾土에서 長한다. 그러므로 腎水脾土가 溫和하여야 肝木이 發榮한다. 만약 病的 상태라면 水寒土濕하게 되어 生長을 이룰 수 없게 되어 木鬱과 風이 發生하게 된다. 木의 성질은 發達이다. 脾己土가 濕하여 下陷하면 乙木의 發達之氣를 疇박하여

生意를 잃게 하여 鬱怒와 脾土를 克하여 風이 動하고 疏泄하게 된다. 그러므로 腹痛下痢, 亡汗, 失血證은 모두 風木의 疏泄에 기인한다.(표9)

표9 肝木의 風이 動하여 熱을 발생하는 機轉



따라서 무슨 病이 발생하던지 木氣의 鬱로 인하지 않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肝木은 生을 주관하는데 사람에게 生氣가 부족하면 10에 8,9는 木氣抑鬱해서 生하지 못해 病이 생기는 것이다.<sup>1)</sup> 40에 陰氣自半하고 50에 肝氣가 제일먼저 衰한다.<sup>3)</sup> 木은 水火의 中氣다. 病이 들면 土木이 鬱迫하고 水火不交하여 外로는 燥하고 內로는 濕하고 아래로는 寒하고 윗쪽으로는 熱하다. 즉 '下溫而上清' '內溫而外清'의 생리가 깨어져서 '上熱下寒'과 '內寒而外熱'의 병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厥陰에 병이 들면 아래로 갈수록 寒濕이 모두 盛하고 윗쪽으로 갈수록 風熱이 아울러 일어난다. 鬱이라는 개념은 본래의 자기 기능(素然, 所以然, 自然)이 있는데 본래 자기기능이 圓滑하게 이루어지면 鬱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래의 자기 기능대로 通하지 못할 때는 鬱이 발생하게 되며 鬱되면 본래의 자기기능이 圓滑하게끔하기 위한 즉 막힌 것을 疏通시키고자 하는 힘이 發生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鬱火 또는 鬱熱이 발생하게 된다.<sup>15)</sup> 곧 水寒土濕하게 되는 病的상태라면 生長을 이룰 수 없게 되어 木鬱과 風이 生하게 된다. 脾升해야 肝木이 上升하므로 水木이 鬱하지 않는다. 胃降해야 心肺도 역시 降하여 金火가 滯하지 않는다. 火降하면 水가 下寒하지 않고 水升하면 火가 上熱

하지 않게 된다.

## 2) 治法 考察

下寒陽虛證은 脾가 左側으로 升하지 못한 腎水의 下沈이나 구체적으로는 肝木의 下陷에서 기인된다. 脾土가 左側으로 升하면 腎水와 肝木이 따라서 升하여 下陷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마땅히 肝脾를 上升시켜 生長을 도와야 하지만 헛되이 腎氣만 따뜻하게 해서는 않된다.”<sup>2)</sup> 培中氣 升肝陷하는데 바탕을 두고 陽虛下寒의 微하고 甚한 것을 살펴서 達肝木 溫暖腎陽하는 약품을 참작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培土滲濕 暖脾升陷하고 達升肝木하고 化氣磨積한다라고 하여 扶中升脾를 중시하고 아울러 達肝溫陽하는데 중법을 두고 있는 것이다. 肝木의 風이 動하면 鬱熱을 발생하여 血이 蒸하게 되어 木燥하게 되어 血不足과 瘀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肝木의 鬱陷에는 升達肝脾하고 活血化瘀하고 培土滲濕한다. 肝脾를 溫升시키지 않는다면 瘀血이 어찌 따라서 升하여 점차 흩어지겠는가?라고 하여 “血在下焦則 宜升이라”하였다. 따라서 마땅히 清涼柔潤한 藥만을 사용하지 않고 당연히 涼血柔肝清風하는 靜的인 藥에 升達肝脾하는 動藥을 넣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瀉濕燥土하여 木을 끌어올리고 鬱을 達하게 한다. 그러므로 熱이 乙木에 있지 脾土에 있는 것은 아니다. “熱이 肝에 있으니 清涼하게 하고 寒濕이 脾腎에 있으니 溫燥시킨다.”<sup>1,2)</sup> “肝熱이 極盛하더라도 脾土를 瀉하지는 말라.”<sup>1,2)</sup> “中下의 寒濕에는 잘못 清潤한 藥을 쓰지 말라.”<sup>1,2)</sup>라고 하여 熱은 설사 肝에 있더라도 寒濕은 脾腎에 있는 것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氣機升降의 左半圓의 치료원칙은 溫腎水, 燥脾土清, 升達肝木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黃元御가 疏木行鬱하고 達木升陷하는 효능을 지닌 桂枝를 多用했음을 알 수 있다.

## 2. 氣機升降圓運動의 右半圓인 心胃肺

## 의 生理, 病理 및 治法 考察

### 1) 生理·病理 考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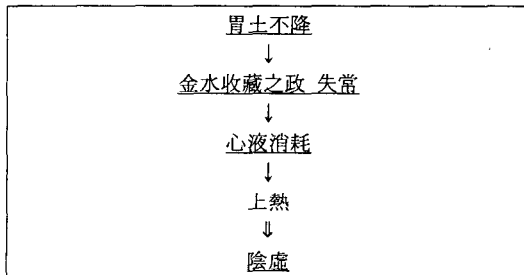
相火는 手少陽에서 上升하고 足少陽에서 下降한다. 相火가 아래에 足少陰에 蟄藏되게 되면 水는 溫暖히 藏하고 水府가 清利하여 遺尿와 閉隆이 되지는 않으니 水道가 調和로워 지는 것이다. 이 火가 한번 泄하면 膀胱에 下陷하여 實하면 下熱과 閉隆이 되고 虛하면 下寒과 遺尿가 된다. 手少陽은 清하고 足少陽은 濁하다. 清한 것은 上升해야 하고 濁한 것은 下降해야 한다. 手少陽이 病들면 上升하지 못하고 足少陽이 病들면 下降하지 못하니 대개 上熱의 證은 모두 甲木이 下降하지 못한 것이다.

이 相火가 下行하지 못하고 逆升하게 되는 것은 戊土가 下降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戊土와 辛金은 서로 下降과 收斂을 주관하는 데 土가 降하면 金이 그것을 斂하고 相火가 下蟄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戊土가 下降하지 못하면 辛金이 逆行하여 收氣를 못하게 되니 相火가 上炎하게 된다. 戊土가 上逆하게 되면 濁氣가 올라가 막아 肺가 내려가는 길을 방해하여 肺가 收斂을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膽火가 간직되지 못하게 된다. 즉 膽火가 뿌리 뽑혀서 上炎하게 되는 것이다. 相火가 逆行하여 庚金을 克하면 甲木이 윗쪽으로 침범하여 戊土를 역시 敵으로 알고 공격한다. 手足陽明의 그 氣가 본래 燥한데다 木火가 서로 刑罰을 가하는 셈이니 燥熱이 鬱發하게 된다. 上熱한 것은 相火의 逆이다. 足少陽은 相火를 좇아서 氣가 바뀌기 때문에 病들면 上逆하고, 手少陽은 相火로서 俞을 주관하기 때문에 病들면 下陷하게 된다. 만약에 上熱이 있다면 반드시 下寒이 있게 된다. 이는 水火가 分離되어 사귀지 못한 까닭이다. 따라서 上熱이 있다면 반드시 中下의 寒濕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心, 胃, 肺, 膽이 下降하지 못하게 되면 陰虛가 발생된다고 주장한다. 陰은 아래에서 盛하나 윗쪽에서 生한다. 火中の 液이 바로 陰의 근원이다. 陰液이 자양되고 편안히 쉬어야 金水

를 생할 수 있다. 陰은 沈靜하고 親下한다. 金水 收藏은 戊土의 下降에 달려있다. 胃土가 右降하여야 金水가 收藏된다. 陽氣의 蟄藏은 후에 木火生長의 근본이 된다. 胃가 왕성하면 氣化하여 陰이 생하게 된다. 氣는 肺에서 통솔되나 실은 胃에서 化한다. 肺氣가 清降하면 陰精을 생산해 낼 수 있으며 곧 胃土가 右轉하여 변화한 것이다.<sup>1,2)</sup> 이와 같이 黃元御는 陰虛는 金水の 虧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肺가 水之上源이고 腎은 水之下源이라는 生理觀을 입론의 근거로 삼고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陰虛의 發生病機의 根源을 살펴보면 胃土가 下降하지 못하면 金水가 收藏하지 못하므로 君相二火가 上升하고 心液이 소모되어 上熱하여 陰虛하게 된다는 것이다.<sup>1,2)</sup> 즉 陰虛는 上熱에서 발생하며 肺氣의 肅降은 반드시 胃氣의 下降에 기인하기 때문에 陰虛를 腎陰虛로 보는 사람들이 金水の 虛를 알기는 해도 胃土의 弱함을 알지는 못한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표10)

표10 胃土不降에 起因된 陰虛의 發生機轉



## 2) 治法 考察

대개 胃逆의 이유는 土濕으로 인한다. 土濕하면 中氣가 不運하게 되므로 陽明이 下降하지 못한다. 다만 清潤의 약으로 中濕을 자양하고 下寒을 더욱 甚하게 한즉 肺胃가 더욱 逆하고 上熱은 甚해지니 낫지 않게 된다.<sup>1,2)</sup> 脾의 下陷의 원인은 土濕에 있다. 土濕의 원인은 水寒에 있다. 腎寒脾濕으로 中氣가 不運하게 되어 太陰이 上升하지 못하는 것이다. 水土의 濕寒으로 中氣가 鬱하고 君相이 뿌리를 잃어 上熱이 생기는

것을 陰虛로 보아서는 안된다.

陰虛한 것은 마땅히 肺胃를 降하게 하여 收藏을 돕도록 해야 하며 心液을 滋養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마땅히 肺熱을 清하게 하고 胃逆을 下降시키는 것이 定法이다. 단순히 寒涼之劑로 陽根을 瀉하고 胃氣를 敗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와같이 氣機升降의 右半圓의 치료원칙은 降胃氣, 清相火, 利肺氣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黃元御가 燥濕, 降胃氣하는 효능을 지닌 半夏를 多用했음을 알 수 있다.

著者들은 이번 論文의 方劑分析에서 加減法에 대한 調査는 수록하지 않았다. 앞으로 加減法의 分析은 黃元御의 治法과 用藥의 原則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더 자세한 生理觀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各各의 病證에 重點을 주어 시행하는 方劑調査方法 역시 同一한 效果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 V. 結 論

黃元御의 方劑內容을 治法을 中心으로 分析하고 治法設定에 理論的 根據를 提供하고 있는 人體生理觀을 종합적으로 考察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四聖心源의 方劑분석에서 氣機升降圓運動에 있어 左半圓의 溫升機轉 失調로 인한 脾·腎·肝의 下寒과 上熱에, 右半圓의 涼降機轉失調로 인한 心·肺·胃의 上熱과 下寒에 治法의 重點이 두어졌다.
2. 脾·腎·肝에서는 血枯木燥와 達肝木行瘀血에, 心·肺·胃에서는 降胃氣의 治法에 重點이 두어졌다.
3. 中氣의 升降은 燥濕의 均衡을 책임지며 이는 相火의 蟄藏에 바탕한다.
4. 中氣升降의 失調와 相火의 泄은 上熱과 下寒

의 주된 原因이다.

5. 黃元御의 人體生理觀의 核心은 中氣와 相火 理論에 바탕을 두고 있다.

## 參 考 文 獻

1. 黃元御撰：黃元御醫書十一種(下)，北京，人民衛生出版社，pp.1-158，1991.
2. 崔桓壽：黃元御의 生涯와 醫學思想，大田大學校 大學院，p.15, 29, 30, 37, 41, 43, 44, 1995.
3. 洪元植 譯：精校黃帝內經，서울，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p.15, 19, 1981.
4. 李 挺：醫學入門，台聯國風出版社，p.5. 民國62.
5. 劉桂榮：黃元御 '中氣升降'淺深，山東中醫學院學報，pp.20-21,1990年 第1期.
6. 趙文學：論黃元御升運脾陽的醫學思想，上海中醫藥雜誌，pp.40-41, 1990年 第4期.
7. 遲炳周：論黃元御執中治本的論治特色，山東中醫雜誌，pp.5-7, 1992年 第1期
8. 嚴季瀾：討論黃元御的中氣升降學術思想，北京中醫雜誌(2)，pp.17-18, 1988.
9. 章虛谷：醫門棒喝(上)，서울，大星文化社，p.153, 1989.
10. 朴世源·康舜洙：火와 熱에 대한 各 醫家의 學說과 方劑의 變遷에 관한 研究，方劑學會誌，第3卷，第1號，p.13, 1992.
11. 陳利國 著，신순식 譯：氣化理論에 對한 概括的인 論述，경산시，東西醫學，Vo 1.18, No.1, pp.103-105, 1993.
12. 張珍玉主編：病因病機學，서울，一中社，pp.63-69, 1983.
13. 大韓東醫生理學會編：東醫生理學，慶熙大學校出版局. p.123, 266, pp.131-132,, 1993
14. 金完熙·崔達永：臟腑辨證論治，서울，成輔社，pp.78-83, 1985.
15. 楊力 著，金忠烈·洪元植 外譯：周易과 中國醫學(上). 서울，法人文化社，pp.427-444, 1995.
16. 楊力 著：中醫運氣學，北京，北京科學技術出版社，pp.83-87, 1995.
17. 田合祿·田蔚編著，郭東烈譯：醫易啓悟，서울，成輔社，pp.305-307,207-216,358, 1997.
18. 魏伯陽原著，朱元育闡幽，李允熙譯註：周易參同契，서울，麗江出版社，pp.461-469, 1991.
19. 金長生·洪元植：章楠의 醫易思想研究，原典醫史學會誌，Vol.9, pp.303-379, 1995.
20. 金聖勳·鄭燦吉·곽계호，東醫病理學，大田，翰林院 p.4, 102, 1994.,
21. 文宗模·金聖勳·林樂哲：升降의 概念，生理 및 升降失調로 因한 病證에 關한 文獻的 考察，大田大學校韓醫學研究所 論文集，Vol.1, No.2, pp.25-39, 1992.